

8/21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5:1-5, 10-11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3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4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1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I. 의롭게 되고 화목케 됨

원래 우리는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怨讐)였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했고 원수인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목케 했다(롬 5:1-11),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졌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와 화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안내되었다.

II.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5:5).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격려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아주 많다.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왜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이다지도 많은 역경(逆境)이 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는가?』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 그러한 의문과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 예수를 부르던 그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고, 확인하며,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지금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너는 「아버지, 제가 통과했던 고난과 시험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영원 세계의 문(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의 여행길에 닥쳐왔던 고난과 시험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

## IV.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누림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한다(롬 5:11, 원문 참조). 자랑스러워한다는 헬라어에는 적어도, 「자랑으로 여기다」, 「즐거워하다」,

「영광으로 여기다」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여긴다. 은혜의 자리에서서 평강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 긍지를 갖고, 즐거워하며, 영광으로 여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에게는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영광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있다.

## A. 환난 중에도 자랑스러워함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가져온다. 이것은 로마서 8 장 28 절과 29 절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善)을 이루게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평강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는 좋아하지만 환난은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나는 오른쪽 눈을 두 번 수술을 받았다. 나는 그런 고통을 싫어하지만, 내가 선포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두 번의 수술보다 내게 더 유익했던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환난이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포함한 은혜가 육신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육신(肉身)이 되신 것과 비슷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그가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이었다. 우리의 환경은 겉으로 보기에 환난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은혜이다. 로마서 5 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환난이 은혜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세 인격을 포함한 여섯 가지, 즉 사랑, 은혜, 평강, 소망, 생명, 영광은 환난 위에 있다. 환난은 바로 은혜의 방문이다.

만일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은혜만 누리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를 싫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난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육신(成肉身)은 그분의 은혜로운 방문이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문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분의 방문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성육신(成肉身)을 사랑해야 한다. 환난은 우리를 방문하는 은혜의 성육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지만 또한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성육신인 환난에 입맞추어야 한다.

귀욤(Guyon) 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입맞추었다고 말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환난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한다. 그러나 귀욤(Guyon) 여사는 십자가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입맞추고 더 많이 오기를 기다렸다. 귀욤(Guyon)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내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내게 하나님을 준다.』 그녀는 십자가를 환영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도 있기 때문이다. 환난은 십자가요,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이다. 이 은혜는 주로 환난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방문한다. 환난의 경험은 견뎌야 하는 것이다(롬 5:3, 원문 참조). 견디는 것은 인내 이상이다. 그 이유는 견뎌야 하는 인내에 고난을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견디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견뎌야 하는 환난의 고난으로 생겨난다.

우리는 생활의 작은 일에서도 이 견뎌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전화를 걸 때 통화 중의 신호가 들리는 것이다. 왜 나는 그것을 싫어할까? 그것은 내게 견뎌야 하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 늑장은 나에게 괴로운 것이지만 나의 견뎌야 하는 보탬이 된다. 견뎌야 하는 연단(鍊鍛)을 낳는다[롬 5:4, 회복역(Recovery Version)에는 「인정받음」으로 번역됨 - 역자 주]. 연단은 환난과 시련을 견뎌야 하는 결과 인정받는 자격이다. 그러므로 연단은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과 속성이다. 청년 형제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 만한 자격을 얻게 하는 견뎌야 하는 필요하다. 환난은 견뎌야 하는 낳고, 견뎌야 하는 인정받는 자격을 가져온다. 어떤 성경은 이 연단이라는 말을 「경험」으로 번역한다. 그것도 옳은 번역이다. 왜냐하면 연단은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속성(屬性) 내지는 덕성(德性)이다.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견뎌야 하는 있고, 그만큼 더 연단의 덕성이 생긴다. 연단이란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는 속성이 아니다.

자연금(自然金)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진짜 금(金)이기는 하지만 제련(製鍊)되지 않아서 보기에 흉하다. 그것은 제련하는 불이 필요하다. 그 금은 불을 많이 거칠수록 인정받는 품질이 될 것이다. 금은 태움과 시련을 통해 누구에게나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을 얻는다. 많은 청년들이 제련되지 않은 금 같을지 모른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광택을 내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생명과 빛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므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연단이 결핍되어 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제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달콤하게 하거나, 포근하게 하는 덕성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인정(認定)을 받기보다 외면을 당할지 모른다. 왜 처음에는 좋던 당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 나쁘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당신이 갖고 있던 은사(恩賜)와 빛 때문에 좋았다.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당신에게는 인정받을 자격이 없었으므로 좋은 것이 계속되지 않았다. 만일 우리에게 연단(鍊鍛)의 덕(德)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여, 나에게 연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가 진정이나?』고 물으실 것이다. 진정이라면 주님은 당신에게 연단을 가져올 환경을 허락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님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주어 당신 속에 이런 자격을 얻게 하실는지 모른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하는 일을 돕는 훌륭한 배필이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에게는 그런 아내가 필요하다. 아내는 그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다.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연단을 주시는 일을 돕는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붙잡힌 바 되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는 말이다. 만일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이지만 연단이 부족하다. 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를 해롭게 한다. 또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권속(眷屬)들을 염려케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돕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害)를 주기도 한다. 우리가 받은 빛과 은사(恩賜)로 그들을 돕기도 하지만, 연단의 부족으로 그들을 해롭게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건담에서 나오는 연단이 필요하다.

### B.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하는 소망 안에서 자랑으로 여김

연단과 함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롬 5:4). 이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소망이다(롬 5:2). 우리는 은혜에 서 있고 평강의 길을 가지만 아직 영광에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그 날이 올 것이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언급했듯이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영광이다. 그것은 전구 속에 전류가 나타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전기의 표현은 전기의 영광이다. 우리는 전기 자체를 볼 수 없다. 전기가 불빛으로 빛을 낼 때, 그것이 곧 전기의 표현이요 전기의 영광이다. 이와 같이 영광이란 표현된 하나님이다. 이 영광은 올 것이며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롬 8:18, 고후 4:17, 살전 2:12, 히 2:10, 벧전 5:10).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다가올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누린다. 우리는 그분을 누리면서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로마서 8장에 가서 좀 더 볼 것이다.

### V.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된다(롬 5:10, 원문 참조).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 매일 많은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구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과 자아(自我)로부터 구원되어야 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의 천성으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몸」 안의 다른 지체들과 건축되기 위해 개인주의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다. 이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장(章)들에서 완전히 밝혀질 것이다. 생명 안에 있는 이러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장 으뜸되는 누림이다.

칭의는 우리를 누림의 자리로 안내했다. 이 자리 안에서 우리는 은혜에 서 있고, 평강의 길을 가고, 소망 안에서 고통을 당하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린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누리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된다. 이것이 칭의(稱義)의 결과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9 장)

8/22 화요일

### 아침의 누림

롬 5:12, 15-21

12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15 그러나 이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저 주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6 또한 거저 주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번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많은 범죄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로 의롭게 됩니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19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오늘의 읽을 말씀

#### 1. 아담의 범죄의 결과

##### a. 죄가 들어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롬 5:12). 로마서 5 장부터 8 장을 통하여 죄는 인격화되어 언급된다. 죄는 왕 노릇 할 수 있으며(롬 5:21),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고(롬

6:14), 사람들을 속이며 죽일 수 있고(롬 7:11),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어 사람의 의지를 거스려 행동하는(롬 7:17, 20) 하나의 인격과 같다. 죄는 살아 있으며, 매우 활동적이다(롬 7:9). 죄는 이렇게 타락된 사람 속에 거하며, 행동하며, 역사하는 악한 자, 곧 사탄의 악한 본성임에 틀림없다. 죄는 실제로 악한 인격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

2.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는 둘째 사람과 둘째 행동과 둘째 결과가 있다. 그리스도가 순종한 결과는 무엇인가?

a. 은혜가 있음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왔다(요 1:17).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롬 5:15). 바울은 생명이 넘쳤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에서 죄가 먼저 오고 사망이 다음에 온 것과 흡사하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혜가 먼저 온 다음 생명이 왔다. 사망은 생명과 대비되며, 은혜는 죄와 대비된다. 죄는 아담의 범죄에서 왔으나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왔다. 죄는 인격화된 사탄으로서 우리에게 독(毒)을 집어넣고, 해(害)를 주고, 죽음을 가져온다. 은혜는 인격화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누림을 준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사람을 파괴시키는 독(毒)으로 사람 속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로 오셨다.

~~~~

## 2.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함

은혜가 왕 노릇하여 생명에 이르는 것처럼, 넘치는 은혜를 받는 우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롬 5:17). 로마서의 처음부터 5 장 11 절에 이르기까지에는 생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로마서 5 장 10 절에서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 구원받으리라고 말하고(원문 참조), 로마서 1 장 17 절에서 의인은 생명을 가질 것이며(원문 참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부분에 올 때, 우리는 로마서 5 장 17 절에서 강한 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롬 6:4).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가질 뿐 아니라,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환경을 다스려 왕 노릇 할 수 있으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

~~~~

넘치는 은혜를 받음

당신은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매우 알고 싶을 것이다. 그것을 갖는 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을 때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받는다.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다 은혜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 장 16 절은, 우리가 그분의 총만한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하고, 로마서 5 장 17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넘침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은혜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가야 하며, 우리가 은혜로 총만될 때까지 거둬들여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은혜로 총만될 때만이 은혜의 왕 노릇함을 체험할 수 있다. 은혜가 우리를 채울 때, 은혜는 우리 속에서 넘치고, 그 후에는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한다. 왕 노릇하는 은혜는 늘 넘치는 은혜 뒤에 온다.

만일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면, 은혜는 우리 속에서 왕 노릇할 수 없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총만히 채우고 나서 우리로부터 넘쳐 흘러갈 때야만 우리는 은혜의 왕 노릇함을 체험할 수 있다. 은혜가 왕 노릇할 때 죄와 사망과 사탄은 정복되고 우리 발 밑에 있게 되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왕들이 된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함에 따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체험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함을 나는 간증할 수 있다. 우리가 은혜로 총만될 때마다, 은혜는 넘쳐흐르고 왕 노릇한다. 그런 다음 은혜에 의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 왕 노릇한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주요 대적들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왕 노릇하기도 한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원리는 5 장에서 계시되었으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체험은 8 장에 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것이다.

채워지도록 열어 놓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리나 가르침이나 권면이 아무 소용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로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 효력이 있는 유일한 것은 신성한 근원에 와서 은혜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존재 깊은 속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여는 것이다. 채워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모든 절연체와 방해물을 없애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여, 저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신을 직접 당신에게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이신 당신 자신으로 저를 완전히 채우소서.』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은혜이신 그분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 열어 드리라. 이것이 은혜의 넘침을 받는 것의 의미이다.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당신은 은혜로 채워질 것이며, 결국 은혜가 당신 속으로부터 흘러넘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 왕 노릇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대적들은 당신의 체험 안에서 철저히 정복될 것이다.

죄와 사망과 사탄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근원에 가서, 은혜로 채워지도록 철저히 자신을 열어 드린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들에 대해 왕 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반드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부터 로마서 5 장 17 절과 21 절로 전진하여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 노릇하고 우리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은혜의 넘침을 받아야 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10, 46 장)

8/23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6:3-5, 11-14, 19-22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3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9 여러분의 육체가 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노예로 드러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20 여러분이 죄의 노예들이었을 때에는 의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그런 일들의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1.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A.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

로마서 6 장 3 절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회복역)라고 말한다. 비록 우리는 첫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의 외적형식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사용되는 물의 종류를 놓고 따지고, 어떤 사람은 침례 방법에 대해 논쟁한다. 침례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선하건 악하건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인 그리스도를 본다.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분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그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침례의 의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이다. 그것은 의식(儀式)이나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극히 중요한 체험이다. 침례의 행동에는 반드시 영적 이동이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침례에 대해 말해서는 안된다. 결코 의식적(儀式的)으로 침례를 행하지 말라. 침례를 행할 때 우리에게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고 있다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침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 침례를 한낱 외적 형식이나 의식으로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침례란 아담의 지체들을 죽음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 흠정역(King James Version)에서도 로마서 6 장 3 절에서 「안으로」라는 말을 사용한다. 침례의 형식과 방법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은 침례의 본래의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데 주의해야 한다. 의식(儀式)을 계속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 비록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침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 자신도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는 아담의 일부에서 그리스도의 일부로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연합의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에 관한 두 가지 또 다른 사항을 분명히 보고 이해해야 한다.

B.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음 -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자람

로마서 6 장 5 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자라면』이라고 말한다[회복역, 다비(Darby)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은 침례를 가리킨다. 침례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란다. 이 「함께 자란다」라는 말은 번역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8 장 7 절의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에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을 때 어느 의미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자라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흠에 씨를 뿌리는 것과 흡사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 씨는 뿌려지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자란다. 우리는 침례를 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자라 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다.

C. 생명의 새로움 안에 행함

우리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고 있다(롬 6:5). 「그의 부활을 본받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새로움이다.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것을 보아야 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즉 그분의 부활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야 함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이제 그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의 부활 안에서 그의 거룩한 생명 안에 그와 함께 자라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체를 하나님에게 종(노예)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부활한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영생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생에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모든 속된 것에서 우리를 분별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드림의 결과는 거룩이다. 이것이 우리 체험의 순서이다. 즉 우리는 보고,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거절해야 한다. 이것은 죄가 우리의 타락된 몸 안에 여전히 거하기 때문이다(롬 6:12). 더 이상 죄와 협력하지 말라.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수동적인 것은 무서운 것이다. 만일 당신이 수동적이라면 당신은 사기 당하고 속는 것이다. 우리는 수동적이어서는 안되고, 너무 능동적이어서도 안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동성도, 능동성도 모두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실을 보고,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우리 지체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거절하며 우리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서 안된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거나 당신의 남편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겸손하거나 친절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은 죄를 거절해야 한다. 죄가 당신에게 와서 어떤 것을 제의할 때 당신은 『죄야, 내게서 물러나라. 나는 너와 아무 관계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죄가 당신을 주관치 못하게 하라(롬 6:14). 이것은 당신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과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협력하겠습니다.』 수동적이지도 말고 능동적이지도 말라. 다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내적이고도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거룩의 결과는 영생이다(롬 6:22). 그러므로 로마서 8 장은 로마서 6 장에서 이어진다. 로마서 6 장은 영생에 이르는 거룩으로 끝을 맺고 로마서 8 장은 생명의 성령으로 시작된다. 로마서 7 장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지 말라. 로마서 7 장이 성경에서 지워질 수는 없지만 우리 경험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로마서 6 장의 끝에서 로마서 8 장의 시작으로 건너뛰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 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한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사실 안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사실은 우리를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았다.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자신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거절하는 위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롬 6:14). 죄는 우리에게 주장할 아무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 서 있으며 죄와 그 세력을 거절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자신과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러 위치적으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한다.

요약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다. 우리는 그의 죽음 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왔고, 이제 그의 부활 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고 있다. 하늘의 회계장부에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 이 여김을 근거로 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운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거룩하게 됨이고, 그 끝은 영생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11 장)

## 8/24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롬 7:18-24

18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2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23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 롬 8:1-4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 오늘의 읽을 말씀

#### 1.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5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임을 보았고, 6 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보았으며, 7 장에서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법의 속박을 발견했다. 로마서 8 장은 로마서 7 장과 대비된다. 우리는 로마서 7 장에서는 사로잡히지만 로마서 8 장에서는 해방된다. 로마서 7 장에는 율법이 있지만 로마서 8 장에는 성령이 있다. 로마서 7 장에는 우리 육이 있고 로마서 8 장에는 우리의 영이 있다. 이렇게

로마서 7 장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법의 속박을 계시하지만, 로마서 8 장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자유함을 계시한다.

우리는 로마서 8 장 1 절부터 6 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 2 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법과 성령과 생명의 세 요소가 하나의 실체임을 본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spirit)을 좇는 자는 영(Spirit)의 일을 생각하나니』 (4, 5 절). 하나님은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5 절에서 앞에 나온 영(spirit)은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뒤에 나온 영은 성령(Spirit)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람의 영을 좇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의 영을 향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 장 1 절부터 6 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귀하다. 우리는 이 구절에 있는 단어를 한 마디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나는 로마서 8 장의 윤곽만 제시하고자 한다.

~~~

B.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해방

로마서 8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종류의 정죄는 피로 처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관적인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 때문이다. 이 법은 내적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우리를 해방하는 이 법은 어떤 법보다도 큰 능력을 갖고 있다. 비록 우리에게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우리 마음의 선한 법이 있으며, 선한 법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몸의 죄의 법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주님께 찬양해야 한다. 어떠한 법도 이 법을 이길 수 없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있는가? 누구도 어떤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없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자연적인 능력이다. 그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한 법이다. 그 법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초월하는 길」로 해방시킨다. 어떤 병사들이 적군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옛날의 전술대로 한다면 그 병사들은 싸움으로써 포위망을 뚫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전쟁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가 적에게 포위된다면 우리는 뚫고 나가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위로 통하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탄아, 네가 나와 비교한다면 네가 힘센

놈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 영 안에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하늘에 가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가기는 쉽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 사탄아, 나는 싸워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는 셋째 하늘에 있게 된다. 사탄아, 너와 너의 군대는 내 발 아래에 있다. 나는 해방되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라. 가령 에베소서 5 장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기 원하는 어떤 자매가 있다 하자.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도 달콤하고 거룩합니다. 나는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 장에서 주어진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단순히 정신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매가 이렇게 하려고 결심할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그 자매의 환경이 바뀌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 그 자매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점잖은 그 자매의 남편이 그 자매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날 아침 아주 저속해진다. 그녀는 대단히 실망한 나머지 결국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사탄은 그 자매에게 달려들고, 그 자매를 포위하고, 그 자매를 공격한다. 그 자매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화를 억누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자매는 더욱더 화가 나서 결국 자제력을 잃고 만다. 그 자매의 결심과 노력은 헛된 것이다. 그 자매는 잘못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우리는 적에게 포위될 때마다 싸워서 뚫고 나가려 하는 모든 시도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즉시 초월할 것이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적이 우리의 발 밑에 놓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한번 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전략에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가장 「현대적」이고, 적을 무찌르는 가장 좋은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죄 대신 찬미가 있게 된다. 어째서 정죄 대신에 찬미와 해방이 있는가?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정죄에 대한 두 종류의 치료법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피는 객관적 정죄에 대한 치료법이고, 생명의 성령, 즉 과정을 거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우리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주관적 정죄에 대한 치료법이다. 주관적 정죄를 체험할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초월할 것이다. 그때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죄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은 이렇게 말해도 안된다. 『주여, 나는 당신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에 맞는 치료법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치료법이다. 주관적인 정죄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 필요하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밖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체험이다. 아담 안에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을 갖는다. 그 생명의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인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력을 가진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우리 영 안에 거하고 우리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한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성령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성령은 모두 하나로 연합된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우리가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생활할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자연스런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2. 매일

이 체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연속되는 체험이어야 한다. 매일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 영을 따라 생활해야 하며, 이 놀라운 영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일단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넓고 습관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즉시 생명의 성령의 강한 법에서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14, 15 장)

8/25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8:9-16, 23-27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하는, 육체에게 빛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시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시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4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6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영 안에 있음

8 장 9 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만일 참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은 위치의 문제이지만 영 안에 있는 것은 조건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위치는 영 단번에 해결되었다. 그러나 영 안에 있는 조건은 변동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조건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음을 선포함

이 조건을 안정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영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를 배우라. 과거에 나는 『오, 주 예수여!』라고 부르도록 여러분을 격려했지만, 지금은 『나는 영 안에 있다.』라고 말할 것을 독려한다. 때때로 우리는 단순히 『오!』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을 접촉할 수 있으며, 항상 『오, 주 예수여!』하고 말할 필요는 없다. 같은 원리로 『나는 영 안에 있다』고 항상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단순히 『안에』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막 성질을 내려던 참이라면 『오』 또는 『안에』라고 말하기를 스스로 훈련하라.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 안에 머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9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므로 우리는 영 안에 있다. 이제 우리는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 조건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영을 체험하는 법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있다. 이

교훈들이 우리가 그 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다. 로마서 8 장에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당신은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죄의 법은 무서운 것이며 당신이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다. 그것이 내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라고 절규한 이유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믿는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또한 그는 그 영을 체험할 수 있기 전에 믿는이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9 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영 안에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지(認知)했으며 인정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처신해야 한다. 과거에 나는 많은 죄의 일들을 행했었다. 내 죄들을 자백하고 내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결심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된 관념이 수년 동안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이가 복음의 선포를 들은 후에 그는 단순히 『아멘.』이라고 강하게 말할 것이며,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복음 전파를 통해 그에게 선포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

### 내주하시는 영의 역사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가 로마서 8 장에서 그 영의 축복된 역사의 각종 방면들을 살펴보자. 먼저 그 영은 내주하는 영이다(9 절, 10 절).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영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가령 미국 대통령이 당신의 도시에 와서 당신의 집에서 잠시 머무른다 하자. 그것은 커다란 존귀와 특권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을 가졌다. 즉 우리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 영의 두 번째 기능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영이신 그분은 게으르지 않으시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데 활동적으시다. 내주하는 영은 생명 주는 영, 곧 생명을 주는 그 영이다.

그 영의 세 번째 기능은 13 절에서 발견된다.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구절에 따르면, 그 영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곧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그 영은 생명을 주며, 소극적으로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일소해 버리신다.

네 번째로, 14 절에서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하심의 기능을 갖는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주하시는 영은 우리를 인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은 매우 달콤하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우리를 교회 집회들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증할 수 있다. 그분을 찬양하자.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 장 15 절은 그 영의 다섯 번째 기능을 제시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들의 명분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 영은 매우 달콤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달콤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진실로 그 영은 부르짖는 영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16 절에 따르면 그 영이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증거하시는 영이다. 그 영의 증거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확증과 간증을 우리 속에서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살아 계신 분, 곧 내주하는 영이 계신다.

일곱 번째로, 26 절은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참여하심으로 기능을 발휘함을 본다. 만일 우리가 약하지 않다면, 그 영은 우리를 돕는데 참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짝이 되신다. 이는 사람의 언어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다.

여덟 번째로, 27 절에서 우리는 그 영의 간구하심을 갖는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그 영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영의 간구하심은 또한 26 절에서도 언급되는데, 그 구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 영의 간구하심은 하늘들 안에서 발생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하는 27 절을 주목하라.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우리 영과 연합시키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생각을 우리 마음과 연합시키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 영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것은 그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과 하나라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탄식하는 분이 그 영인가, 아니면 우리인가? 26 절은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한다. 확실히 우리는 탄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이 그 영의 간구하심이다. 이것은 우리와 그 영, 그 영과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가리킨다. 우리의 탄식이 그 영의 간구하심이 된다. 더욱이 그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과 섞여 있다. 그 영이 우리 영과 연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우리 마음과 연합되어 그분의 간구하심이 우리의 탄식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이 우리와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결국 23 절에 따라 우리는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갖는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만 처음 익은 열매일 뿐 아직 완전한 수확은 아니다. 첫 열매는 장차 올 완전한 맛봄에 대한 견본이요, 미리 맛봄이며, 보장이다. 23 절이 지적하듯이 이 완전한 맛봄은 우리 몸의 구속과 관계있다. 오늘날 우리는 영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며, 기껏해야 혼 안에서 누린다. 우리 몸은 아직 삼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몸의 구속이 필요하다.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맛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대하고 있다.

영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영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의 내주하심, 생명을 주심, 죽이심, 인도하심, 부르짖으심, 증거하심, 우리 연약함을 돕는 데 참여하심, 간구하심 등을 누린다. 결국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그분을 누리는데, 그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맛봄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교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을 위해 사실들을 밝히고 또한 선포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 영의 역사의 이 모든 방면들을 읽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다만 그 영의 각 기능에 아멘하라. 『영 안에서, 아멘. 내주하심, 아멘. 생명을 주심, 아멘. 죽이심, 아멘. 인도하심, 아멘. 부르짖으심, 아멘. 증거하심, 아멘. 참여하심, 아멘, 간구하심, 아멘. 첫 열매, 아멘. 아멘. 나는 영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역사를 누린다.』 나는 당신이 로마서 8 장의 모든 구절에, 특히 「영 안에」라는 문구에 아멘할 것을 격려한다. 당신이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영의 역사의 각 방면에 아멘한다면,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바뀔 것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건축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69 장)

8/26 토요일

### 아침의 누림

롬 8:28-3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31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4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36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오늘의 읽을 말씀

### III.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후사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5-36 절). 이것은 분명히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음 세 구절은 이렇게 선포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7-39 절).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더욱 이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분은 일단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분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매우 지혜롭고도 깊은 사람이었다. 내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 의로움, 거룩함, 영광 - 에 따라 로마서의 세 부분을 구성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말하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는가?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그분의 의가 필요했다. 왜 하나님은 그의 거룩을 행사하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세속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모두 거룩하게 하셔야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택한 자들이 모두 천박하고 비천하며 누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행사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근원이고 뿌리이며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기 전에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사랑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사랑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전에 사랑하셨다. 모든 것 이전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모든 것의 근본이며, 이 사랑은 그분의 마음이다. 사랑은 구속, 칭의, 화목, 성화, 변화, 형상을 본받음, 영화롭게 하심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후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보증으로 남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본일 뿐 아니라 구원의 보증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 보증에 관해 말하는데, 영원 보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보장은 그분의 사랑이다. 31 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라고 말한다. 우리는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관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할렐루야!』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31 절下)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보증이다. 바울은 5 장 8 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랑을 언급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말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5:5). 바울은 로마서 5 장에서 사랑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넓은 범위를 포함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모든 기록을 끝내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제시할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바울은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의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 자신에 의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수 있었다(37 절). 바울은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39 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이 보여지면 문제가 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라면 성질을 내는 것과 같은 조그만 죄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증되며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당신은 보증되었는가? 바울은 보증된 사람이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확신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며 그리스도가 승리자 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보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고린도후서 13 장 13 절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안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보험 증서이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험 증서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당신은, 『나에게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나의 보험 증서는 로마서 8 장 31 절부터 39 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되어 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1 장)

###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0장

8/27 주일

아침의 누림

엡 1:3-14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8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2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13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14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 948. 감추었던 비밀 나타났으니 (中:764)**

1 감추었던 비밀 나타났으니  
실재이신 그리스도세  
육체 됐던 예수 내 생명 됐네  
그는 나의 영광의 소망

**(후렴)**

영광 영광 주는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지금 내 영 안의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2 내 영 안에 오신 주 그리스도  
이제 내 혼 번케 하시네  
그가 우리 몸도 번케 하시리  
주와 같은 형상 되도록

3 사신 주님 매일 접촉할수록  
주의 성분 더해져가네  
내 각 부분 주의 형상 되도록  
항상 깨어 주를 누리리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3:21-31;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5-36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Crucial Point: All Things Working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Scripture: 로마서 8:28-3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21

Supplemental Reading: *none*

찬송: 635

For study questions and additional materials, please visit the church website at [churchinnyc.org/bible-study](http://churchinnyc.org/bible-study)